

‘상상된’ 탐정과 ‘정탐되는’ 식민도시의 민낯 — 김내성의 장편소설 『마인』을 중심으로

김희경*

1. 서론
2. 탐정이 부재하는 경성 속 경계에 선 추리/밀정의 주체
3. 가장(假裝)된 ‘모던 경성’과 “마도(魔都) 경성”의 민낯
4. 경성의 공간 분할과 감각되는 제국의 심상지리
5. 결론을 대신하여: 탐정의 소멸과 ‘스파이’ 유불란으로의 복귀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1939년 발표된 김내성의 『마인』에 나타난 탐정과 식민도시 경성 표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김내성 소설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공간에 대한 문제, 특히나 도시에 대한 감각을 살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인』 속 도시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소설에 나타난 도시가 서양의 추리·탐정소설에서 보이는 ‘모더니티’로서의 도시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양상이 이국적인 틀의 무비판적인 모방 혹은 이식이란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소설에 형상화되고 있는 도시는 경성의 실제적 공간이자 근대의 세례를 입은 특정 장소로 구체화되며, 이 과정에서 ‘식민도시’로서의 특징을 첨예하게 부각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본고는 ‘탐정’ 개념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단어에 이중의 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미(‘근대적 추리 주체’와 ‘끄나풀’)가 내포되어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탐정이 제국의 질서를 강화할 수도 혹은 교란시킬 수도 있는 문제적 인물로 독해될 가능성을 남긴다. 이때 식민지 조선에서 (서구 탐정소설) 본래적 의미의 탐정은 존립 가능하지 못했기에, 소설에 형상화된 탐정은 ‘상상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김내성은 이러한 ‘상상된’ 탐정의 눈을 빌려 식민도시 경성 위에서 벌어지는 범죄 사건을 정탐하는데,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식민지 이중도시로서의 민낯이 폭로된다. 특히 소설 속에 묘사된 추격전으로부터 식민지 공간 분할의 문제가 노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성의 도시 공간이 심상지리로 ‘복원’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상상된’ 탐정은 최종적으로 ‘소멸’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발표된 소설에서 나타나는 ‘스파이·방첩 서사’는 탐정의 이중적 속성이 결국 제국의 질서 속으로 수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가 『마인』을 통해 던진 질문, 즉 식민지 조선에서 이지적이고 객관적인 주체의 눈으로 제국의 실체를 ‘탐정’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온전히 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일 것이다.

(주제어: 김내성, 마인, 탐정소설, (상상된) 탐정, 심상지리, 식민지 공간 분할)

1. 서론

1930년대 “장편탐정소설”¹⁾ 『마인』의 작가로 잘 알려진 아인 김내성

1)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용어 사용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데, 김내성 소설을 규정하는 용어로 ‘추리소설’ ‘탐정소설(문학)’ 등이 다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탐정소설’이란 용어보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장르적 개념’으로서의 ‘추리소설’이란 용어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김내성 소설에 나타난

(雅人 金來成, 1909~1957)은 한국 추리·탐정소설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장편의 탐정소설 한 권이 간행되지 못한” 당대의 문단 현실 속에서 김내성은 “조선 최초”라 할 수 있는 장편 탐정소설을 창작함으로써 조선 문단의 “빈약성”을 보완하고 “질과 양으로 향상의 길을 밟아나가”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²⁾

김내성은 1931년 일본 유학을 떠나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진학하고, 1935년 일본 탐정문학 전문잡지 『프로필(ぷろふいる)』에 단편 「타원형의 거울」을 발표하며 추리·탐정소설 작가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전도 유망한 탐정소설가로서의 미래를 꿈꾸며 1936년 귀국한 뒤 그는 『조선일보』에 「가상범인」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탐정소설 창작의 길을 걷는다.³⁾ 물론 김내성 이전에도 조선 문단에 탐정·정탐 소설이 발표되고

과학적 추리·수사의 태도가 ‘근대 추리소설’의 한 특징임이 강조된다. 하지만 추리행위의 주체인 ‘탐정’의 활약에 주목하고 그것의 당대적 의미에 무게를 두어 ‘탐정소설’로 김내성의 일련의 작품들을 호명하는 선행 연구들 역시 발견된다.

본래 ‘탐정소설’이란 말은 메이지 말기 일본에 추리소설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며, 1930년대를 전후하여 식민지 조선의 문학장에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내성이 ‘탐정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근대 창작 추리소설의 모습이 확정된다. (송덕호, 「추리소설의 유형」, 대중문화연구회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33~34면) 이와 관련하여 『마인』이 『조선일보』에 연재되는 동안 “장편탐정소설(長篇探偵小説)”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연재가 완료된 이후 단행본으로 발표되면서도 『마인』이 “장편 탐정소설”로 명명되고 있다는 점, 김내성이 (해방 이후에도) 몇 편의 비평을 발표하며 ‘탐정소설’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규명하고자 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당대에 전유되고 있던 ‘탐정’소설적 성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청될 듯하다. 이와 같이 ‘추리/탐정소설’에 관한 용어 선택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고는 일단 ‘탐정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인』에 나타난 ‘탐정’소설적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2) 심당학인 식(心堂學人識), 「序」, 『마인』, 조광사, 1939.12; 김내성, 『마인』, 페이퍼하우스, 2009, 5-6쪽.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인용문에 면수 표시.

3) 김내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보 및 작품 목록은 박진영이 정리한 연보 및 작품 목록을 참조. 박진영, 「연보 및 작품 목록」, 『판타스틱』, 페이퍼하우스, 2009, 167-183쪽

있었지만⁴⁾, 김내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탐정소설이라는 장르문학이 식민지 조선 문단에 본격적으로 소개·창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김내성 소설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화된 경향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그 분석 대상이 '본격소설'에 한정되고 특히나 문예사조 중심의 문학사 서술이 주가 되는 상황 속에서 장르문학으로서의 탐정문학은 대중 취미, 오락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격하되어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신문학사조사』(1949)에서 백철은 1930년대 중반 통속소설이 등장하는 가운데 김내성이 탐정소설가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서술하며, 이러한 문단의 평가는 '암흑기의 현실 속에서 '통속소설'이 유행하고 있던 흐름 아래 이뤄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⁵⁾ 이러한 문학사적 평가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지속

참고

- 4) 한국의 창작 탐정소설의 효시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1908년 『제국신문』에 '정탐소설'이란 표제를 달아 연재된 이해조의 『쌍옥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창작 추리·탐정물 보다는 번안·번역 작품들이 문단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었고(아서 코난 도일, 해몽생(海夢生) 역, 『충복』, 『태서문예신보』, 1918.10.19.-11.16), 1920년대에 들어서야 창작 탐정소설이 발표된다. (1920년 『박쥐우산』과 『혈가사』, 1925년 방정환의 『동생을 찾으려』, 1926년 『칠칠단의 비밀』 등) 이후 1930년대에 류방, 최류범, 최독견, 채만식(서동산), 김내성 등 다양한 작가들의 탐정소설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재조일본인' 작가에 의해 '일본어로 쓰인' 탐정소설의 문제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재조일본인 작가에 의해 창작된 탐정소설들의 경우 앞서의 경우와 비교해 양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작가들의 '연작'의 형식을 취해 작품을 연재한다는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추후의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경성탐정취미회 동인, 『여자 스파이의 죽음』, 『조선공론』, 1931.1-5; 경성탐정취미회, 『세 구슬의 비밀』, 『조선공론』, 1934.2-4. 이들 작품에 대한 확인은 유재진·이현진·박선양 편, 『탐정 취미: 경성의 일본어 탐정소설』, 문, 2012 참조)

- 5) 이러한 백철의 평가에는 '순문학(본격문학)' 중심의 위계질서가 내포되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 김내성의 문학세계가 '단편' 중심으로 이어져나감에 따라 '순문학'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김내성의 『백가면』, 『마인』 등을 통하여 탐정소설가로서 그 귀재(鬼才)가 평판된 것도 이러한 기

되었던 가운데, 김내성의 소설들은 1990년대 들어 대중문학 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문학 연구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기 시작한다.⁶⁾ 이전까지의 경향, 즉 본격문학의 하위 장르로서 탐정소설의 면모를 살피는 것을 넘어 근대적 소설 양식으로서의 탐정소설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문학적 의의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다.

김내성 소설 연구는 대부분 그의 대표작 『마인』 개별 작품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그의 소설 세계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⁷⁾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김내성의 다양한 작품들이 논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채로운 논의 지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특히나 2009년 김내성 탄생 100주년을 기점으로 김내성 소설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를 거칠게나마 유형화한다면, 1)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의 연구⁸⁾, 2) 변안·번역 연구⁹⁾, 3) 일제말기 '방첩/스파이 소설' 연구¹⁰⁾, 4) 해방 이후 작품

운(인용자-통속소설의 등장) 속에서 등장한 사건이다. …(중략)… 그 뒤 단편소설을 통하여 순문학의 측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보며 작품활동을 해 나갔는데 김내성의 『시유리(屍琉璃)』, 『백사도(白蛇圖)』, 『광상시인』 등 …(중략)… 이 그것을 보증하는 작품들이다.” 백철, 『통속소설의 유형』,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334-335쪽.

6) 정세영, 『김내성 소설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조성면, 『한국 근대 탐정소설 연구: 김내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7)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김내성 문학 전집은 발간되지 않은 실정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그의 작품들이 복간되고 있지만, 단편 선집 혹은 개별 장편소설의 단행본 발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내성 소설세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관점의 연구가 아직 본격화지 못한 것은 아마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다.

8) 고선희, 『김내성 연애소설과 전후의 망탈리테』,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최승연, 『근대적 지식인 되기를 향한 욕망의 서사: 김내성 추리소설에 나타난 탐정 유희의 정체』,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9) 신성환, 『김내성 변안 추리소설에 나타난 공간의식 연구: 아서 코난 도일의 원작 속 공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批評文學』 제44호, 韓國批評文學會, 2012; 정혜영, 『번

연구¹¹⁾, 5) 일본어 창작 소설 연구¹²⁾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계승하는 가운데, 김내성 소설에 나타난 경성 표상과 심상 지리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그의 대표작 『마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논자들에게 의해 이 소설은 김내성의 작품들 중 본격 탐정소설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 대표작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소설 전반에 걸쳐 역사가 소거되고 탐정의 감정적·육감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등 ‘기형적 탐정소설’로 귀결되었다고 간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¹³⁾

역과 번안 간의 거리], 『현대소설연구』 제4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최애순, 『식민지 시기 탐정소설의 번역과 수용 양상 및 장편 번역 탐정소설 서지연구』,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 10) 김성연, 『방첩소설,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국민오락’의 조건: 김내성의 『매국노』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정종현, 『大東亞와 스파이: 김내성 장편소설 『태풍』을 통해 본 ‘대동아’의 심상지리와 ‘조선』,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정종현, 『“해방전후” 김내성 스파이 탐정 서사의 연속과 비연속: 〈태풍〉과 ≪청춘극장≫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정혜영, 『제국과 식민지, 그리고 탐정문학: 김내성의 〈태풍〉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 11) 이는 크게 두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첫째는 해방 이후 김내성 소설에 나타나는 ‘식민 기억의 청산과 민족국가 확립의 욕망’이란 특징에 주목하는 계열의 연구이다. 서사 내적으로 발견되는 김내성의 민족국가 확립의 욕망을 살펴보는 것이다. 식민지 말기 체제협력적인 작품을 창작했던 친일의 기억을 지우고, 해방을 맞이하여 새로운 민족국가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호명하고자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둘째는 해방 이후 장편연애소설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며, 욕망과 애정, 윤리의 문제를 살펴보는 연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
- 12) 김영옥, 『김내성의 『탐정소설가의 살인』에 대한 기호학적 서사 분석』, 『한국학연구』 제2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홍윤표, 『탐정소설과 식민지적 아이덴티티: 김내성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 13)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육감적 측면의 문제가 1930년대 탐정소설의 본질적 측면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나 김내성이 ‘기괴한 것의 충동’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변격 탐정소설에 깊이 매료되고, 이를 중단편 소설들에서 그려내고 있었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이다. 보

그러나 탐정소설이란 범주로 김내성 소설을 살피는 데 있어서 공간의 문제, 특히나 도시에 대한 감각은 그의 소설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김내성 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그의 작품에 묘사된 도시가 서양의 추리·탐정소설에서 보이는 '모더니티'로서의 도시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고, 이러한 양상이 조선적인 것이 지워진 빈 공간에 "이국적인 틀을 이식"하여 "서양의 것과 필적할만한 조선의 새로운 탐정소설 모델"을 주조하고자 하는 김내성의 욕망에 다름 아니었다고 판단한다.¹⁴⁾ 그런데 그의 소설을 통해 묘사되는 도시의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한편으로 '식민도시' 경성의 특징을 첨예하게 부각하고 있는 또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내성의 소설에 주조되고 있는 도시 공간은 탐정이 활보하기 위해 요청되는 기본 배경으로서의 서구 근대의 도시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제국 일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의 민낯을 폭로하는 공간으로 독해될 가능성을 은밀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일제시기 김내성이 체험한 일본 유학의 경험과, 귀국 후 마주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일본유학과 전문교육을 통해 일본의 최신 경향을 직접 학습"하며, 무엇보다 "1930년대 일본과 조선 대도시의 가장 화려한 근대성을 만끽"¹⁵⁾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김내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김내성은 식민지배체제의 제국주의 파시즘으로의 심화가 예고되

다 자세한 논의는 최애순, 『1930년대 탐정의 의미규명과 탐정소설의 특성 연구』,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18쪽.

14) 최승연, 『근대적 지식인 되기를 향한 욕망의 서사: 김내성 추리소설에 나타난 탐정 유희란의 정체』,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115쪽.

15) 이영미,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13쪽.

고 있던 동시에 식민지 근대화가 정점에 도달하던 1930년대 중후반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전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출되는 식민지 근대화의 문제는 작가 김내성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감각되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1930년대 중후반 김내성이 경험하고 있는 근대 도시의 이중성, 특히나 그의 소설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고는 『마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일제시기 김내성 문학세계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특징을 포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1930년대 문단에서 활발하게 제출되고 있는 탐정소설들이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의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떤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길 기대한다.

2. 탐정이 부재하는 경성 속 경계에 선 추리/밀정의 주체

“193x년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마인』(『조선일보』, 1939.2.14.~10.11)은 ‘공작부인 주은몽 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범인으로 지목된 살인귀 해월의 정체를 추적하는 조선의 명탐정 유불란(劉不亂)의 서사로 이어진다. 『마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소설이 겨냥하고 있는 탐정소설로서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30년대 조선에서 ‘탐정’이란 존재가 과연 성립될 수 있었는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탐정은 “불가해한 범죄나 미궁에 빠진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이성적 영웅”¹⁶⁾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에게는 ‘추리’를 통한 문제 해결의 욕망이 가장 핵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16) 조성면, 『한국근대탐정소설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9, 78쪽.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탐정이란 개념은 '직업인'으로서의 특징과 함께 어떠한 행동 능력 혹은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며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있다. 추리 행위의 주체로서의 탐정의 면모가 소설에 형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의 송사소설(訟事小說)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00년대 중후반 연재되었던 이해조의 『명탐소설 쌍옥적』(1908.12.4-1909.2.12)이 한국 추리·탐정소설의 효시로 여겨진다.¹⁷⁾ 여기에서의 '정탐(偵探)'이란 단어는 '탐정'이란 명사로 쓰이거나 '무언가 숨어있는 내막을 살피 알아내는 것'이라는 서술어로도 쓰이고 있는데, 특히나 '정탐하다'의 동사형으로 자주 사용되었다.¹⁸⁾ 그러나 '탐정'이란 단어가 종종 '정탐꾼' '밀정(密偵)'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시기의 탐정·정탐(하다)의 개념에는 다소 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⁹⁾

이후 192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 문단에 서구 탐정·추리소설의 번역·번안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실질적인 추리소설 속 '탐정' 표시가 성립되는 모습을 보인다. 1920년대에 들어서야 탐정이 'detective'의 번역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정밀한 생각과 날카로운 관찰로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미세한 사실들로부터 수많은 진실을 파악해내는 지적

17)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비평사, 1994, 140쪽.

18) 박유희, 『정탐에서 탐정, 그리고 스파이로』,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국학자료원, 1997, 44-45쪽.

19) 1920년대 정탐/탐정이란 용어에는 '정치 군사적 공공성과의 연계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지영은 1920년대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들("군사탐정 백여명, 봉천 전시가 인심 흥흥"(1925.11.14), "밀탐정을 살해한 정의부원의 공판"(1928.11.19) 등)에서 '탐정'의 용례를 살피는데, 대부분이 "스파이, 밀사, 군대 경찰병 따위를 지칭하는데 주로 쓰였고, 국가적 군사적 기밀을 캐는 행위와 행위자들을 지칭하는데 쓰였던 만큼 윤리적으로 좋은 어감을 주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김지영, 『'탐정'·'기괴' 개념을 통해 본 탐정소설의 형성과정』,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국학자료원, 1997, 222쪽.

능력의 획득”²⁰⁾이 강조되고 있는 근대 계몽기의 시대적 지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출발한 탐정 개념은 서구의 추리·탐정소설이 본격적으로 번역·번안됨에 따라 발견된 ‘추리’의 주체로 확대된다.²¹⁾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탐정’이란 용어는 1930년대 탐정소설의 활발한 창작·유통과 함께 보다 구체화된 개념으로 정립된다. 문제는 이 시기 탐정이라는 말에 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다. 최근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1930년대 조선 내부에서 유통되는 탐정이란 개념에는 단순히 근대적 추리 주체로서의 면모 외에도 제국의 질서에 영합하는 ‘밀정·끄나폴’로서의 특성이 발견된다. 특히 탐정의 시초로서의 ‘정탐’이 공권력에 해당하는 ‘순검(巡檢)’의 하수인에 닿아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²²⁾, 후자의 경우와 같은 탐정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제국의 경찰 권력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자명한 부분이다.²³⁾²⁴⁾ 그러한 면모는 당시 일본사회에서 유행되던 탐

20) 김지영, 『탐정·‘기괴’ 개념을 통해 본 탐정소설의 형성과정』,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국학자료원, 1997, 231쪽.

21) 이와 관련하여 서구의 탐정·추리소설의 시기적 변모 양상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다. 최애순에 따르면 그 모습은 일반적으로 ‘모험소설→고전적 탐정소설→범죄소설’로 변모하며, 이때의 ‘고전적 탐정소설’은 “논리적·과학적 추리(추론) 공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은 국내 탐정소설의 특성으로 그대로 흡수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최애순, 『채만식의 유정한 탐정소설 『염마』』,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79쪽.) 한편, 이러한 서구의 탐정·추리소설의 특징을 “응접실형 탐정”의 존재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추리소설에서 발견되는 탐정이 수사에 가담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과 달리) 설록 흡즈의 경우 집으로 찾아온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얻어낸 정보만으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해낸다.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의 ‘탐정’ 표상과 시대구분』,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국학자료원, 1997, 33쪽.)

22) 박유희, 『정탐에서 탐정, 그리고 스파이로』,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국학자료원, 1997, 48쪽.

23) 김지영은 일제시기 발표된 탐정소설의 수사 주체들은 “경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형사,

지·정탐의 측면과 맞닿아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국내의 문제로 좁혀질 경우 형사들의 살인사건 조사나 기자들의 은밀한 사건 추적의 행동에 탐정이란 용어가 따라다니곤 했다.²⁵⁾ 한편 이와 같은 개념은 당시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각 국가들 사이의 패권다툼의 양상에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이념 대결과 같은 상황 속에서 탐정-스파이로 변질되는 지점이기도 하다.²⁶⁾

이와 같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통용되고 있던 탐정의 개념은 다층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간주된다. 여기서 탐정이란 존재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로 독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제국의 질서를 강화할 수도 혹은 교란시킬 수도 있는 '경계인'으로서의 위치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탐정이란 개념에 덧씌워져있는 두 가지의 특징, 즉 꼬나풀이자 근대의 추리 주체라는

순사, 서장, 순사보들"이며, 이들이 일본의 경찰제도의 일원 혹은 그 영향권 아래 있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탐정소설 속 "탐정행위의 본원적인 자격은 일차적으로 '전문 수사자'로서 경찰에 주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김지영, 『탐정·'기괴' 개념을 통해 본 탐정소설의 형성과정』,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국학자료원, 1997, 228-229쪽.

24) 한편, 에르네스트 만넬은 추리소설의 문학적 성격을 "범죄나 폭력 그리고 살인은 다루지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해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탐정소설의 본질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탐정-스파이라는 설정이 용이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에르네스트 만넬,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이후, 2001, 91쪽.

25) 최애순, 『1930년대 탐정의 의미 규명과 탐정소설의 특성 연구』,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19-21쪽.

26)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신문 『선봉』에 나타난 탐정 관련 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의 국가 기밀 정보(군사, 정치)를 빼내는 정탐꾼, 스파이로서의 탐정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몇몇 흥미로운 기사 제목은 『프로쓰끼주의적 정탐, 비밀파괴자, 조국의 변절자』, 『선봉』, 1937.1.27; 『탐정을 대중적으로 모집』, 『선봉』, 1937.7.6. 등이 있다. 최애순은 이때의 탐정 표상이 탐정소설의 유입 및 일본이나 러시아 스파이 단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며 탐정·탐지는 비밀파괴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애순, 『1930년대 탐정의 의미 규명과 탐정소설의 특성 연구』,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24-25쪽.

특성은 탐정의 특징을 새롭게 독해하도록 추동한다. 그로 말미암아 선행연구들은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의 방공방첩주의의 확산과 이에 대한 추리소설의 탐정-스파이 소설로의 변질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본고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탐정 표상에 내포되어 있는 이중의 면모가 제국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복적 사유의 가능성으로 독해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제국 일본의 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측면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경찰 권력과의 유착 장면 한편에서, 근대적 추리 주체로서의 탐정의 논리적 추론 행위가 그러한 권력의 자장(磁場) '내부'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후자의 문제는 특히나 조선인 탐정에 대한 일제 경찰 권력(=식민지배자)의 근원적 불안함과 동귀에 놓여있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식민권력의 불완전성이란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 무엇보다 탐정에게 전제된 '합법적·합리적 의심'의 행위자라는 속성이 식민지 조선인 탐정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를 경계 내부의 유동적 존재로 해석하게끔 여지를 남긴다. 추리 주체/밀정이란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 탐정의 존재가 경찰 권력을 향한 전복적 가능성의 한 측면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소설에 나타난 탐정 표상에 대한 독해는 보다 세밀한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는 과연 이러한 추리·탐정소설적 탐정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신문, 잡지에 소개된 기사를 살펴보면, 『중외일보』에 실린 기사 「백일청천하 폭로된 사설 탐정소 흑막」²⁷⁾에서는 경성 황금정에 위치한(“황금정 2정목에 있는

27) 「백일청천하 폭로된 사설 탐정소 흑막-공갈사기와 횡령 감행, 각 방면에 피해 불소」, 『중외일보』, 1929.3.13.

조선생명빌딩”) 사립탐정소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소위 (사립)탐정’으로 자처하는 탐정의 면모를 살피는데 그의 ‘공갈 사기, 횡령, 협박’ 등의 혐의가 소개되고 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탐정의 실제 역할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는 지점으로, 기사에 따르면 이 탐정소는 단원을 모집한 뒤 “과부와 기타 부호 등의 부정 비밀을 탐지하여가지고는 협박 공갈 등의 부정 행동을 기탄없이 해왔”음이 폭로된다.

이와 더불어 『삼천리』에 실린 ‘탐정사(探偵社) 혹은 ‘탐정국(探偵局)’²⁸⁾ 관련 내용의 경우, 실제 경성에서 발견되는 탐정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된다. 『서울탐정국 내막탐정기』에서는 사립탐정소라 할 수 있는 “서울탐정국”의 활동과 그 취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탐정국에는 6명의 민활한 탐정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수십 명의 소년탐정을 두는 시스템을 통해 이들은 궁극적으로 “대경성(大京城)의 비밀을 탐정해낸다”는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실제 역할 사이의 괴리가 발견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 탐정국의 활동은 “가출 隱匿, 拐帶, 失跡, 잠복자 소재 등 內探과, 裁判事件證據蒐集, 怨罪反證과 素行關係 內探(妻와 妾의 행실, 혹은 평소의 酒癖 등 舉行不審真相)과, 風評眞僞 內査(사회 일반의 風評 及 법인개인의 행동에 관한 風評의 진위)와, 결혼신원조사, 은행회사 사원 채용상 피채용인의 인품, 경력, 습벽, 전과유

28) 한편, 『삼천리』에 두었던 ‘비밀탐정국’의 경우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탐정의 역할을 일정 정도 모방하여 사건의 본질을 엄밀하게 밝힌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역할 역시 흥신소의 역할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의 濃霧속에 잠긴 사건이나 인물이 만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와 갖지 모든 것이 아직 질서를 잡지 못하고 또 모든 인물들이 제각기 부서에 서지 못한 곳에서는 더욱 尤甚합니다. 본사는 이제 비밀 탐정국을 두어 가장 엄밀한 조사를 거친 뒤 이 모든 방면의 내부 사정을 폭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1차 계획으로 위선 1. 사회 각 방면의 월급조사 / 2. 全朝鮮 부호의 재산조사 / 3. 외국회사에서 朝鮮으로부터 거더가는 황금액의 세 가지를 매월 한 가지씩 취급하여 보겠습니다.” 『秘密探偵局』, 『삼천리』, 1932.9, 131쪽.

무 조사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소개되어 있다.²⁹⁾ 즉, 본래적 의미에서 기대되는 탐정의 역할-미제 사건의 내막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그 단서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적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탐정의 임무는 그저 ‘홍신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탐정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실상 1930년대 조선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문 사립 탐정은 존재하지 못했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내성이 창조한 탐정 유불란(劉不亂)의 존재는 서구 탐정소설의 ‘조선적 변주라 할 수 있다.

김내성은 유불란이라는 탐정을 ‘창조’함으로써 조선에도 전문적 탐정이 존재한다는 상상으로부터 소설을 시작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설의 첫 장면을 인용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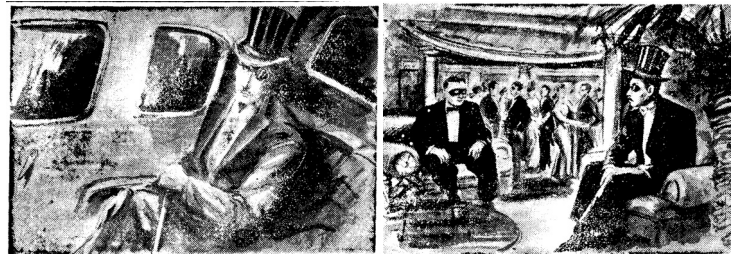
“그러나, 그러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공작부인과 백영호의 약혼을 남달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것은 지금 한강 인도교를 호기 있게 달리고 있는 한대의 택시 속의 인물이었다.

그 택시 속의 인물, 실크햇에 턱시도를 입고 흰 장갑을 낀 손에 검은 색 단장을 들고 귀밑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시커먼 수염을 곱게 기르고 게다가 검은 모노클(외알 안경)까지 낀 모습은 마치 파리나 런던의 사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양 있는 풍류신사였다.³⁰⁾

29) P探偵, 『서울探偵局 內幕探偵記』, 『삼천리』, 1941.3, 42쪽.

30)



(좌) 2회 연재분 삽화: 뒤펡으로 가장한 탐정 유불란 모습 (김내성, 『마인』, 『조선일

아니, 만일 독자 여러분이 탐정소설의 팬이었다면 이 자동차 속의 인물이 모리스 르블랑의 탐정소설 주인공, 파리 경시청을 마치 어린애처럼 농락하기를 즐겨하는 무서운 도둑 아르센 뤼팽으로 가장하였다는 것을 곧 간파할 것이다. (18면)

서구적 탐정소설의 외관을 닮은 사건의 배경과 인물들이 소설 서두에 형상화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때 작가는 왜 이러한 서구 탐정소설의 외관을 차용하고 이를 1930년대의 경성의 시공간으로 옮겨내고 있는지 그 소설 쓰기의 목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탐정의 존재가 성립된다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이지적이고 냉철한 추리·추론의 태도를 견지한 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탐정의 시선 아래 모든 것은 논리적 추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게는 의심·불신·의문을 갖는 태도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런 점에서 형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의 정체를 추적해나가는 탐정의 존재는 '형사=탐정'이란 등식을 구체화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탐정소설이 성취되려면 그 배후에 "경찰사회, 경찰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감시하는 자기 감시사회"의 조직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일본 탐정소설의 성립에 관한 언급을 살펴본다면, 탐정은 "권력의 대리인"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된다.³¹⁾

이 문제를 식민지 경성의 공간으로 적용시킬 경우 보다 민감한 장면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모습이 경찰 권력의 대리인으로서 식민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나가는 또 다른 권력의 수행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이 사회

보』, 1939.2.16.) (우) 3회 연재분 삽화: 유불란(이선배)과 탐정소설가 백남수의 모습(김내성, 『마인』, 『조선일보』, 1939.2.17.)

31) 高橋 修, 『近代日本文學の出發期と探偵小説』, 『探偵小説と日本近代』, 靑弓社, 2004, 103쪽(정혜영, 『탐정 문학의 영역』, 『식민지 조선과 탐정문학』, 255쪽 재인용).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 사건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탐정의 활동이 결국 식민지 경성의 ‘치안유지’라는 경찰 권력의 의도와 겹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다. 이는 탐정의 존재가 식민지 경찰 권력과 언제든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식민지 경성이 궁극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부분이다. 소설 속 유불란을 두고 경찰서장이 “사회의 유용한 기관”이라고 호명하며, 그의 존재를 “잘 이용하는 것이 (제국 권력의-인용자) 권리인 동시에 의무”(138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김내성의 소설에서 유불란은 ‘법과 질서의 수호’라는 탐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로 해석되기도 한다. 경찰의 ‘대리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으로부터 미묘하게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다. 유불란의 외양과 관련하여 작가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괴도 루팡’을 닮은 탐정이란 측면인데, 김내성에 의해 ‘창조된’ 유불란이 ‘아르센 뤼팡’ 시리즈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Maurice Leblanc)을 일본식으로 음차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²⁾ ‘셜록 홈즈’로 상징되는 ‘정통’ 탐정이 아닌 괴도 뤼팡의 모습을 닮은 유불란의 모습은, 소설 속 이선배(=유불란)가 괴도 뤼팡을 모방한 외관을 차려입은 것이라든지, 파리 경시청을 농락하는 뤼팡과 같이 막다

32) 이와 관련하여 최승연은 김내성의 소설 가운데 탐정 ‘유불란’이 등장하고 있는 작품들(『마인』, 『백가면』, 『황금굴』, 『황금박쥐』, 『태풍』, 『매국노』 등)이 유불란을 매개로 하여 “선형적(linear)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각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유불란의 사건 해결력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서양의 추리소설 작가들이 즐겨 사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유불란이라는 이름의 설정은 김내성이 일본에서 『프로필』로 데뷔할 즈음(1935) 일본의 대표적인 탐정소설가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乱歩)’가 ‘에드거 앨런 포우’를 음차하여 필명으로 삼았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설명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최승연, 『근대적 지식인 되기를 향한 욕망의 서사』,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107-108쪽 참조.

른 골목길에서 유불란이 경찰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귀신 같이 사라져버리는 장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작가는 유불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불란의 추리 서사가 경찰 권력의 위계질서를 교란하는 모습을 소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탐정의 '경찰 권력에 대한 우위' 도식은 서구 추리·탐정소설 및 비슷한 시기 조선 문단에서 발표된 여타의 탐정소설에서도 반복되어 발견되는 부분이다. 문제적 범죄 사건들에 관여할 때 '탐정 \geq 경찰권력'이라는 역학 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일개 개인으로서의 탐정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추리·탐정 행위를 통해 '탐정으로서의 능력에 관한 한' 우위에 서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마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스스로 근대의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했다고 자임하는 제국 경찰 행정력의 무능함이 언급되는 것과 동시에, 유불란의 탐정으로서의 천재적 능력이 소설 전면에 부각된다. 특히 유불란이 수사에 합류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일 인물일 수 없다는 상식에 균열이 가해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데, 이러한 유불란의 추리 능력은 "경찰 및 독자로 대변되는 상식적인 공통 견해를 뛰어 넘어 자기 인식의 상대성을 깨닫는 반성적 이성을 순수한 논리적 형식으로 구현하는" 근대 탐정소설 속 추리의 본질적 성격과 동귀에 놓인다.³³⁾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식민지 경찰 권력이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였는지, 그것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함께 겹쳐놓고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설정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독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후반 조선의 모든 제영역이 일제 당국의 삼엄한 감시와 검열의 시선 아래

33) 차선일, 『한국 근대 탐정소설의 한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4호, 국제한인문화회, 2014, 203쪽.

농임에 따라 모든 합리적 의심과 이성이 억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탐정을 통해 표상되는 ‘지적 추리’의 주체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 속에서 쉽게 성립되기 어려운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지적 추리’의 주체로 설정된 탐정이 제국 경찰과 취하는 협력의 포즈 뒤로, 소설 속 사건의 진실에 대한 정보의 총량을 제어함으로써 ‘논리적 추리 싸움’에 있어서 승자가 된다는 추리·탐정 소설의 기본 서사는 상당히 전복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김내성은 탐정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 혹은 의의를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즐거움에 있다고 보았다. 1936년 발표한 『탐정소설의 본질적 요건』이란 글에서 그는 “탐정소설의 본질은 ‘엥?’하고 놀라는 마음이고, ‘헉!’하고 놀라는 마음이며 ‘으음!’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의 심리적 작용”³⁴⁾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일련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바로 김내성이 생각한 탐정소설의 가장 큰 의미인 것이다. 그것의 본질은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게 하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것에 있다. 김내성은 탐정소설의 양식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지극히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는 논리적 사고·추론의 행위 그 자체를 추동하고, 더 나아가 제국의 권력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문제적 장면을 소설 속에 은밀하게 삽입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장(假裝)된 ‘모던 경성’과 “마도(魔都) 경성”의 민낯

『마인』의 첫 소제목은 “가장무도회”이다. ‘193x년 경성’이 소설의 배경

34) 김내성, 『探偵小説の本質的要件』『思想의 薔薇』서문, 『月刊探偵』, 1936.4(조성면 편,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 151쪽 재인용).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계범죄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적 무희로 유명한 “공작부인” 주은몽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가장무도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도하의 각 신문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 경성에서의 가장무도회 개최는 “광적인 이국적 취향”에 다름 아니다. 한강 건너편 명수대 자택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장무도회의 풍경을 묘사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남국으로부터 화신을 싣고 찾아오는 바람조차 훈훈한 그날 밤, 손님들을 태운 자동차가 달빛에 부르익은 한강을 황홀히 내려다보며 명수대를 향하여 마치 그림처럼 미끄러져갔다.

오늘 밤 공작부인의 초대를 받은 손님들은 가장무도회에 적지 않은 흥분과 호기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절세의 미인이요 세계적 무희인 공작부인과 손을 마주 잡고 춤출 수 있다는 그 광경을 다시 씹어 상상할 때 그 황홀하고 찬란한 일주간의 전 생애의 금자탑처럼 고이고이 가슴 속 깊이 모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공작부인의 초대장을 받은 그날부터 동경이나 혹은 해외에서 익혔던 서툰 스텝을 음악에 맞추어가면서 연습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초대를 받은 손님들 가운데는 유명한 실업가라든가 명성 있는 변호사도 섞여 있었으나 대체로 보아서 문학가, 미술가, 음악가, 연극인 같은 예술가가 대부분이었다. …(중략)…

가장무도회는 지금이 한창이었다. 저쪽 상단에는 그리 빈약하지 않은 밴드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백인백양 가지각색으로 가장을 한 신사숙녀들이 열정적인 음악에 맞추어 짹짹 씹을 지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춤추는 모습은 마치 파리의 카바레를 서울에 옮겨온 것과 같은 풍경이었다. (17~20면)

작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소설 서두에 가장무도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 그 모습은 1939년의 식민지 경성의 현실이 소거된 ‘탈역사화된’ 이국 풍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경성을 그려내고 있는 이 장면

은 많은 논자들에 의해 소설의 전반이 “역사적 현실과 유리된 비현실적 환상의 공간으로 형성”되게끔 추동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지점이다.³⁵⁾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점차 심화되는 제국주의 파시즘의 광풍 속에서, 1939년의 경성은 결코 화려한 근대 도시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소설 속 가장무도회가 열리는 경성의 모습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암울하고 황폐한 식민지의 수도 경성 대신, 역사성이 소멸된 판타스틱한 공간, 그야말로 무국적의 ‘경성’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³⁶⁾³⁷⁾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하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비현실적·판타지적 현실 상황의 문제가 형상화된 것과 동시에 소설 내부로부터 탐정 서사 중간 중간에 투입되고 있는 ‘그 어떤 시선’이 발견되는 점이다. 『마인』이 단순히 식민지 경성의 모습을 무국적의 공간으로 표상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해석은, 소설에 나타난 여러 문제적인 공간, 장소 묘사의 문제를 축소시키게 된다.

35) 정혜영, 『1930년대 조선과 이국적 탐정소설 『마인』』, 『탐정문학의 영역』, 역락, 2011, 57-58쪽.

36) 이와 관련하여 김내성에게서 발견되는 정치, 민족 문제에 대한 ‘불감증적’ 태도를 지적한 논의도 제출되고 있다. 홍윤표는 일본어로 창작된 김내성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중 언어의 문제를 살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김내성은 “이중언어 현실에 대한 고뇌와 민족 아이덴티티에 대해” “무사태평한 것처럼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홍윤표, 『탐정소설과 식민지적 아이덴티티: 김내성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208쪽.

37) 이는 『마인』 속 인물들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가령 ‘주은몽’의 경우 조선인 무용수라고 하지만 이름 자체에서는 조선 국적을 명확히 읽어낼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은 김내성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부분인데, ‘나미/모현철’(『타원형의 거울』) ‘이몽란/나용귀’(『가상범인』) 등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무도회는 지금이 한창이었다. …(중략)… 중세의 기사로 변장한 사람, 빅토리아 왕조의 궁녀로 가장한 사람, 인도의 귀족을 흉내 낸 사람, 집시풍의 여자……, 그들의 가장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따져볼 때 가장술이 극히 유치하고 빈약함을 면치 못했으나 이렇게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 그리 추한 풍경도 아니라고 신사는 생각했다. (강조-인용자, 20~21면)

그는 한편 모퉁이 종려수 그늘 밑에 놓여 있는 소파로 걸어갔다. 아까부터 파초나무 그늘 아래 외로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한 사람의 청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청년은 거의 가장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눈에다 시키면 마스크를 썼을 뿐이다. 사람들의 춤추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의 입술과 눈동자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 가장무도회를 비웃는 듯한 표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강조-인용자, 21면)

이는 앞서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가장무도회에 참석한 '수상한' 신사(이선배)와 한 청년의 눈으로 목격되는 가장무도회의 풍경이 묘사되고 있다. 뒤편의 모습으로 가장(假裝)한 이선배에 의해 이 가장무도회의 민낯이 '폭로'된다. 겉보기에 화려한 가장무도회는 실상 어디까지나 “유치하고 빈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에야 겨우 그 조잡하고도 수준 낮은 상태가 가려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전달된다. 또한 백영호의 아들인 그 청년의 눈에도 이 호사스럽고도 화려한 파티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라 서술된다.

후에 이선배의 정체가 '탐정' 유불란과 관련되어 있고, 백남수가 탐정 소설가라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이선배와 백남수가 공통적으로 소설 속 '탐정'의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임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선배와 백남수라는 인물들을 경유하여 '탐정'의 시선으로 이 가장무도회의 면면을 '해부'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의 시선은 '모던 경성' 혹은 근대화라는 가장술(假裝術)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식민

지 경성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시선은 분명 소설 전반에 주조되고 있는 현실 감각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식민지 근대화를 향한 시선’의 존재를 읽어낼 지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은몽을 살해하고자 위협한 범인 ‘해월’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채 그녀를 살해하겠다 위협하고, 소설 속 탐정(들)의 서사는 이러한 살인을 막아 해월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집중된다. 이때 사건을 탐지하는 추리 행적의 과정이 상당히 세밀하게 실제 경성의 지리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전봉관은 이와 같은 장면이 “당시 경성의 도시구조와 문화를 세련되게 활용”³⁸⁾하고 있다는 점이라 짚어내며 『마인』에 나타나는 경성의 실제적 풍경이 탐정소설의 ‘배경’으로 기능하는 장면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마인』의 한계, 즉 무국적의 경성이 형상화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미묘한 심상지리의 감각을 일깨우는 소설적 장치가 활용된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경성의 실제적 공간을 소설 속에 주조하는 것과 더불어 소설 속 핵심적인 사건, 음모,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근대의 세례를 입은 경성의 특정 장소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월의 범죄가 시작되는 근원은 ‘과거’에 닿아있지만, 그것이 수행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현재 경성의 도시 공간 위에서의이다. 여러 사건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특정 장소를 그 배경으로 둔 채 소설 속에 주조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은 부민관, 삼청동 삼층 양옥집, 명수대 자택, 미스코시 백화점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적 공간으로는 명수대 주은몽 자택과 삼청동 백영호의 자택³⁹⁾, 공적 장소로는 부민관⁴⁰⁾, 백화

38)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009, 220쪽.

점이 각각 설정되고, 그 안에서 소설의 핵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 건립된 근대식 건축물이라는 특징은 더 나아가 이들 공간이 조선의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수행된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은유이자 상징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소위 '모던 경성'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이러한 도시 공간들이 소설 속에 배치됨에 따라 1930년대 근대화 된 조선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읽힐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사적 영역의 삼청동 백영호 자택과 명수대 주은몽 자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소설의 핵심 (범죄)사건이 이들 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발생하고 있다. 일제는 1930년대 '대(大)경성' 건설 프로젝트와 식민지 도시계획의 일환인 '경성시가가지계획'을 통해 도심 외곽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성(부)의 경계가 확대된다. 일제에 의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대경성 프로젝트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 저택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의 (식민지) 도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속 명수대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30년대 중반 시가지 확장이 이뤄짐에 따라 경성으로 편입된 곳으로, 이곳에 많은 부호들의 별장이 밀집되어 있다고 한다.⁴¹⁾ 소설 속 명수대 저택에서 화려한 파티

39) 류수연은 『마인』에서 모든 범죄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 '집'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안전하고 견고하고 사적 영역에 속했던 집이라는 공간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공간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환기시키게 되며, 이를 통해 『마인』의 서사는 "이미 마을이 되어버린 경성 속에서 어떠한 공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류수연, 『신문, 도시, 그리고 탐정소설: 김내성의 『마인(魔人)』 연구』, 『상허학보』 제40집, 상허학회, 2014, 96-97쪽.

40) '한국 최초의 근대식 다목적 회관'인 부민관은 1935년 경성부에서 경성전기주식회사로부터 백만 원을 기부 받아 준공되었으며 지하 일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가운데 '부민관 결혼식'을 묘사한 장면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하객을 천 명 이상 초대할 초호화 결혼식에 다름없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009, 228쪽.

41)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009, 215쪽.

가 벌어진다는 설정은 그런 점에서 일정 정도 현실에 발 딛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많은 논자들이 짚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1930년대 중후반 경성의 도심에 이러한 대저택을 수용할 만큼 큰 부지가 없었다는 사실⁴²⁾에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설정은 과장과 상상의 결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영호 저택은 소설 속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 무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적 공간의 특징은 ‘폐쇄된’ ‘밀실’의 성격이 뚜렷한 곳이자 마치 고딕소설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음침하고 공포감이 깃든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⁴³⁾

42) 전봉관에 따르면 1930년대 경성에는 댄스홀 자체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대저택이라 하더라도 가면무도회가 열린다는 설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명수대에는 그러한 호화로운 가면무도회를 열만큼 큰 홀을 가진 저택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전봉관, 『《마인》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12-217쪽 참고.

43) 저택의 분위기와 더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에로·그로·넌센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에로·그로·넌센스’는 1930년대 대중 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유행되었던 개념으로, 에로틱/그로테스크/넌센스의 줄임말이다. 당대의 비평가 백철은 이러한 ‘에로·그로·넌센스’는 자본주의 문화의 위기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당대 조선 문단의 “타락”이자 “비속화”된 특징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이때 ‘통속문학’으로 분류되는 “탐정취미성(探偵趣味性)” 작품들에서 ‘에로·그로·넌센스’가 노출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한다. (백철, 『1933년도 朝鮮文壇의 展望』, 『東光』, 1933.1, 70-71쪽.)

한편, ‘에로·그로·넌센스’의 당대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에로’의 경우 “문명의 퇴폐기(頹廢期)”에서 발견되는 한 특성으로, “진〇한 연애보다도 흔히 ‘오입’의 뜻”을 담고 있다. (『에로·그로·넌센스亂舞한諸尖端相(1)』, 『조선일보』, 1931.1.2.) ‘그로’는 ‘괴기’의 다른 말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당시의 용례를 살펴보면 “본래는 황당환기한 작품을 평하는 말로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 와서 일생생활에 권태를 느낀 현대사람들이 무의미한 위안으로 괴이한 것, 이상야릇한 것”에 대한 감각과 관련지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어해설』, 『동아일보』, 1931.2.9.) 한편 ‘넌센스’는 ‘무의미’를 대신해 사용되기도 했는데, “근대적 ‘넌센스’라는 개념이 (당대 ‘노서아’ 사조에 대항해서) “세계를 풍미하는 이 대조류의 하나인 ‘아메리카리즘’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고 설명된다. (片石村, 『尖端的 流行語』, 『조선일보』, 1931.1.4.)

이제 xx일보사의 민완기자 정대호가 공작부인 은몽과 인터뷰한 기사 중의 한 대목을 소개해볼 필요가 있다.

……삼청동 정원 위에 거대한 암녹색 그림자를 그리며 높다랗게 솟아 있는 이 삼층 양옥은 마치 탐정소설에 나오는 중세기의 고성과도 같고 무슨 유령의 집과도 같았다. (164면)

그렇다! 두 번째 참극이 일어난 것은 백남수가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도 서울 장안엔 짙은 안개가 비 오듯이 흐르고 삼청동 공원 일대는 그 깊고 깊은 안개 속에서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 열 시를 치는 패종소리가 텅 빈 복도로부터 땡-땡- 울려왔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의 장막이었다. (222~223면)

그런데 저택에 대한 소설 내부의 묘사를 살펴보면, 이들의 정체는 전반적으로 베일에 가려진,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뚝 선 채 경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적 공간에서 작가-서술자의 시각으로 포착되는 경성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무대는 다시 삼청동 백영호의 저택으로 옮겨간다.

때는 오후 여덟 시 전후……. 삼청동 공원 일대에는 짙은 어둠의 장막이 흐르고 멀리 내려다보이는 시가지에는 오색의 네온사인인 굽주린 요부의 눈동자처럼 링크를 했다, 천태만상의 죄악을 한 아름 품고 지금 마도(魔都) 경성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148면)

인용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명수대, 삼청동 저택에서 바라본 식민도시 경성의 모습이다. 특히 삼청동 저택에서 바라다 보이는 경성 시내의 모습이 “천태만상의 죄악을 한 아름 품고” 있는 “마도(魔都) 경성”의 모습

으로 서술되고 있음이 문제적이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실상 『마인』에서 경성에 대한 서술자의 인상이 목격되는 유일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경성 시가지의 화려한 도시로서의 면모에 대해 “오색의 네온사인인 굽주린 요부의 눈처럼 잉크를 하”고 있다고 서술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앞서 지적된 것과 같은 근대화된 도시 경성의 모습을 향한 또 다른 시선의 존재로 읽히는 부분이다. 짧게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이 장면은 『마인』 속 식민지 경성의 도시 공간을 마주하는 작가 김내성의 분열된 시각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성은 일견 가장무도회의 세계와 같이 화려하고 호화로운, 근대의 세례를 받은 모던 도시와 같아 보이지만, 작가-서술자의 눈으로 은밀하게 정탐된 경성은 실상 ‘마도(魔道)’ 위에 세워진 근대화의 왜곡된 산물 그 자체의 면모라는 점 역시 발견되는 곳이다.⁴⁴⁾

44) 한편, 이러한 ‘모던 경성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소설에 나타나는 모든 경성의 장소에서 어떠한 일본인도 발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인 표상 문제는 이 시기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 즉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로 쓰인 소설임을 고려할 때 별다른 고려 없이 수행된 글쓰기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보면, 과연 실제로 식민도시 경성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소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는 의문이 드는 바이다. 1930년대 중후반 경성부의 인구 변화 양상만 살펴봐도 1920년대에 비해 일본인의 수는 약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20년 경성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는 65,617명에서 1935년 124,155명, 1940년에는 154,68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성 거주 일본인의 숫자가 조선인의 수에 비하면 약 1/3 정도 되는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식민도시 경성으로 유입되는 일본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김백영, 『식민지 도시계획의 정치사회학』,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431면의 표 3-3(1920~1944년 경성부의 인구 변화) 참고.) 특히나 범죄자를 쫓는 탐정-경찰의 수사 과정이 소설의 주된 서사로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본인 제국 경찰의 모습이 서사 내부에서 ‘완벽히’ 소거되어 있는 것은 문제적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식민도시 경성의 민낯에 관한 서술은 『마인』의 중심 서사와 함께 논의될 때 보다 구체적인 해석 지점을 얻게 된다. 이 범죄 사건의 기원으로서의 '부부암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 결과 주은몽-백영호-황세민 사이에 얽힌 관계가 독자에게 소개된다. 이러한 구성의 측면을 살펴볼 때 소설은 과거의 공간(평안도)/ 현재의 공간(경성)을 중심으로 두 축의 서사가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백영호-엄여분-백문호 사이의 애정의 문제와 백영호의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백영호가 백문호를 살해하고, 엄여분은 고향을 떠나 아이를 출산하며, 백영호는 재산을 상속받아 백만장자·예술가로서의 삶을 산다. 문제는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이 과거의 공간을 벗어나며 따라 새로운 가면을 쓴 채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서사가 구조되는 경성의 공간은 이들이 과거와는 '다른' 얼굴,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무대이자, 과거의 복수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문제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소설의 서두에 묘사된 '가면무도회'의 장면은 이 소설의 도시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살인자라는 과거를 지운 채 예술가로서의 삶을 사는 백영호, 해적이 되었다가 회개하여 교육자의 길을 걷는 황세민(백문호), 완벽한 복수를 위해 복수귀 해월의 가면을 쓴 주은몽. 여기에 덧붙여 1인 3역을 수행하고 있는 유불란과 변호사라는 가면 뒤로 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는 오상 역까지, 『마인』 속 인물들은 경성의 도시 공간 속에서 모두 가면을 쓴 채 욕망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4. 경성의 공간 분할과 감각되는 제국의 심상지리

『마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설 속 인물의 서사와 사건의 발생이 경성의 특정 장소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묘사되고 있는 점이다. 작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혹은 인물들의 이동 경로·동선을 상당히 구체적인 곳으로 설정해놓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가령 김수일의 아파트, 황세민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의 위치 등은 소설을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곳이 실제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특히 용의자의 뒤를 쫓는 ‘추격 장면’이 흥미진진한 부분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추격전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박진감과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묘사됨에 따라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묘사되고 있는 추격 장면이 당대 경성의 현실 위에 구조되어 독자의 실감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설 속 최초의 추격 장면인 이선배의 도주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 명수대 주은몽의 저택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실크햇에 텍시도를 입은” 이선배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박태일 순사부장과 그 일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속력으로 그를 뒤쫓는데, 택시를 탄 이선배와 그 뒤를 뒤쫓는 오토바이의 추격전은 명수대→한강인도교→경성역→남대문동→조선일보 사옥→K 여고 뒷골목으로 이어진다. 소설 초반 펼쳐지는 이 추격전에서 얻어지는 속도감은 “의심받는 자에서 의심받는 자로 전락해버린 유불란이 다시 탐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힘”⁴⁵⁾으로 작동한다.

45) 류수연은 『마인』에서 발견되는 ‘속도’가 탐정소설의 추리 행위를 가능케 하는 핵심에 놓여있음을 밝힌다. “가장 과학적인 이성으로서 탐정은 이 모든 속도를 관장하는 능

그리고 두 번째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는 살인귀 해월의 위협으로부터 주은몽이 두려움을 호소하여 자신이 살던 본래 저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앞서의 추격 장면과 “반대방향으로”⁴⁶⁾ 이뤄지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으로, 주은몽과 오상억이 탄 차를 뒤쫓는 임경부의 추격전이 묘사된다. 삼청동→중로 네거리→남대문→세브란스병원⁴⁷⁾→경성역→명수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반전, 즉 쌍둥이인 주은몽과 예쁜이가 바뀌치기 되는 음모가 실행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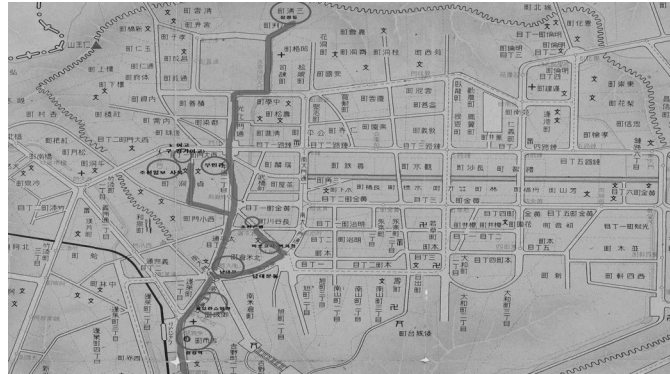
소설의 절정에 이르러 마지막 추격전이 벌어진다. 유불란의 추리는 마침내 최후의 살인자로 오상억을 지목하고, 도망치는 오상억을 임경부와 박 부장이 뒤쫓는다. “마치 재미있는 서부활극”과도 같은 이 추격전의 경로는, 두 번째 경로를 되짚어 올라간다. 명수대 자택→한강 인도교→경성역→남대문→조선은행 앞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긴박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거리에 선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오상억의 자동차”와 이를 뒤쫓는 경관들의 거리는 300m에서 200m, 100m로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황금정(黃金町) 사거리에 무장한 경관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 세 번의 추격전의 경로를 경성의 지도 위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마인』 속 추격전의 역할은 단순히 경성의 도시 공간을 소설의 배경

력을 지닌다. 결국 속도는 탐정의 추리가 모든 정보를 범죄가 벌어지는 하나의 시공간 속으로 빠르게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은 결론으로부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탐정소설의 뒤틀린 인과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탐정이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앞에 올 수 있게 만들며 더 나아가 “근대성의 표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류수연, 『신문, 도시, 그리고 탐정소설: 김내성의 『마인(魔人)』 연구』, 『상허학보』 제40집, 상허학회, 2014, 93-94쪽.

46)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22쪽.

47)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오늘날 연세빌딩이 들어선 경성역 맞은편에 있었고, 현재의 신촌캠퍼스 자리로 옮긴 것은 1962년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24쪽 참조.



〈그림 1〉 『마인』 속 추격전의 경로

으로 불러들이는 것⁴⁸⁾을 넘어서 또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시기 조선 문단의 작가 김내성에게 경성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심상지리로 복원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김내성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소설 속에 형상화하고 있는 추격전의 양상을 통해 포착될 수 있는 식민지 작가의 무의식과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구조는 경성 시내의 한국인 거주지 북촌과 일본인 거주지 남촌으로 구획됨에 따라 일종의 ‘이중도시(dual city)’로 구성되는데, 이는 식민도시 경성만의 전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인 도시구조의 문제가 “실제 지리(real geography)라기보다, 구성된(constructed) 심상지리(imagined geography)일 가능성이 농후”⁴⁹⁾하다는 점이다. 심상지리란 본래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도출된 논

48) 그런 점에서 전봉관의 글은 『마인』에 나타난 경성의 지리·장소를 상당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장소, 도시구조에 대한 평면적인 설명과 소개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지점이다.

49) 김종근,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국대학교 문화기술원,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49-50쪽.

의로서 '어떤 지역에 대한 상상 혹은 인식에서 도출된 마음속의 지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⁵⁰⁾ 에드워드 사이드에게서 발견되는 오리엔탈리즘이 실상 동양에 대한 서양의 '자의적인 공간 규정'이라 비판되는 것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며, 서구 사회가 오리엔탈리즘의 심상지리를 매개 삼아 "내부의 이질적인 것과 연결된 외부의 표상을 생산해서 그것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전략으로 삼고 있음이 지적된다.⁵¹⁾ 이렇듯 심상지리의 문제는 자아/타자에 대한 표상과 분할의 정치학에 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왜곡된 상상을 하나의 구체화된 표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심상지리의 감각이 교묘하게 구조화됨에 따라 조선 내부의 공간은 지리적 상상 작용에 의해 분할된다. 일제 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북촌/남촌의 공간 분할의 정치학은 조선 내부에 식민지적 공간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남촌/북촌으로 구분되는 이러한 심상지리에 대한 감각이 '조선인 사이에서만 통용된' 단어였다는 사실이다. "남북촌' 차별 이슈"는 식민지배하의 조선인에게 현실을 각성시키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작용했으며, 조선인들은 일제에 의해 "구체화된 차별"을 겪으면서 "이중도시라는 심상지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⁵²⁾ 그렇기

50) 정창석, 『만들어진 신의 나라: 천황제와 침략 전쟁의 심상지리』, 이학사, 2014, 387쪽.

51) 조윤정, 『이태준 문학의 심상지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12쪽.

52) 김종근은 '남/북촌'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사이에서만 통용된' 단어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조선인들에게는 '피식민지 조선'이란 현실 감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가진 이중도시적 심상지리는 만들어진 기원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중도시'라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 같은 이중도시 심상지리는 지배민과 피지배민 모두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김종근,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64-65쪽.

에 식민도시 경성에 기입된 공간분할의 정치학이 식민지 조선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인의 공간 북촌과 일본인의 공간 남촌의 분할 속에서 ‘남촌’에 대한 무의식적 외면은 낯선 타자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으로 형상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34년 발표된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구보의 산책 장면이다. 소설의 주인공 ‘구보’는 이러한 식민도시 속 공간분할의 역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그의 산책 코스는 북촌 내부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⁵³⁾

『마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인물들의 도심 질주의 양상은 상당히 큰 궤적을 그리며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역시 ‘구보’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식민지 공간분할의 역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구보가 결코 건너갈 수 없었던 경성의 심리적 거부 지역이 『마인』 속 인물들에게도 쉬이 횡단할 수

53) 윤대석은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속 주인공 구보는 결코 “식민지의 공간분할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보의 산책 경로를 추적하며 이 과정에서 “구보가 산보하는 공간은 철저하게 북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결과 이 소설은 “경성 내부의 식민지 본국의 공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반쪽짜리 고현학”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제 144호, 국어국문학회, 2006, 95쪽.

반면 방민호는 이 작품이 “순연한 고현학이란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른다는 인식의 불안 위에서 씌어진 소설”이라고 규정한다. 구보의 경로는 청계천이라는 남/북촌의 경계선을 넘어 북촌으로 진입하여 남/북촌의 인접지역들을 순환하고, 이후 경성역을 기점으로 하여 유탄한 뒤 종로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가고 있다. 방민호에 따르면 이러한 구보의 산책코스는 “그가 가는 곳마다 경성이 식민지 수도임을 깨닫고 있으며 이 과정은 작중 말미로 갈수록 지극히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식민지 서울인 경성에 대한 구보의 철저한 자의식적 태도”가 발견되는 부분으로 독해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방민호, 『1930년대 경성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방민호 편,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음, 2010, 182-184쪽.

없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추격의 경로는 경성부의 끝(삼청동)과 끝(흑석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이들의 질주는 일본인 거주지 남촌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추격전에서 오상억은 남촌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도주하지만, 그의 질주는 “무장한 경관대”에 저지되어 ‘황금정 사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자 이번엔 자동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오상억은 ‘본정’ 입구를 향해 달음박질친다. 그러나 이 역시 물샷틈없이 막아서는 “경찰의 총부리”에 막히자, 그는 결국 더 이상 남촌을 향해 전진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 추격전 혹은 도주의 경로는 남촌을 향해 설정되지 못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도는 좌절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뒤로 소설은 또 다른 특징적인 장면을 기입해놓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마인』의 중심서사 속에서 최후의 악인으로 설정된 오상억의 서사가 파생됨에 따라 역사·현실에 대한 부피감이 확산되며, 특히 식민지 경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읽힐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살피기 위해 악인 오상억의 몰락⁵⁴⁾은 어떤 이유에서 설정된 것이며, 그것이 전체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오상억은 지금 멍하니 뺨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십만 원이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작년 가을 목단강 유역에 약 오십만 평이나 되는 광대한 토지를 사 놓은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그것을 개간하고자 하니

54) 이와 관련하여 김주리는 오상억이라는 인물이 “전형적인 입지전적 영웅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출신에 내재된 ‘비천함’이 그를 계몽적 영웅 대신 “아버지의 흥악함에 이어진 범죄자”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백정 출신의 과거를 숨긴 채 학식과 자본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오상억의 패배는 결국 하층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적 경계심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라 설명된다. 김주리,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래성의 <마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3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193쪽.

적어도 십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했다.

“십만 원, 십만 원!” (87면)

백영호의 저택은 삼청공원 바로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삼층 양옥이었다. 높은 콘크리트 담장과 드높은 정원과 그리고 꽃 화분이 가득 놓인 베란다는 이 집 주인의 화려로운 생활의 일면을 말하는 듯이 오고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씩 빼앗는 것이었다.

오상억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백만 원!”

선망과 질투와 그리고 자기를 덮어 누르는 그 어떤 압박에 저항하려는 듯이 그의 손끝은 성난 사람처럼 푸르럭거리면서 초인종을 역세게 눌렀다. (90면)

그러한 오 선생께 저는 무엇을 기념물로 남겨놓고 죽어야 할까요? 오 선생! 저의 일신에 속한 모든 것은 오 선생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오 선생은 만주 목단강 유역에 사두신 오십만 평의 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십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오 선생, 저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두 달 동안 저를 위하여 모든 정력을 기울여 주신 오 선생께서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주택을 오 선생의 만주개발 자금의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주시면 저로서는 더 이상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⁵⁵⁾ (409면)

이렇게 그때 저를 구해준 그의 호의를 거음에는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애정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씨 일가의 전멸과 함께 나의 수증으로 들어올 백만 원이란 재산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다. …(중략)… 즉, 그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는 대신 그는 나에게 장차 굴러 들어올 백만 원을 그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473면)

악인 오상억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원인으로 ‘돈’과 ‘성공’에의 욕망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고 밝혀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은

55) 이 유서는 오상억에 의해 조작된 유서로서, 오상억은 쌍둥이 자매 예쁜이를 주은몽 대신 살해하고 난 뒤 주은몽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소설 내부의 균열 지점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악인 오상억의 정체 폭로와 몰락의 과정은 (파편적으로나마) 역사적 현실을 소설 내부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리 행위의 과학적·이성적 판단보다 윤리적 판단의 문제가 우위에 놓이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다.

오상억이 이 사건의 최후의 범인임이 밝혀지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그가 돈에 대한 탐욕을 드러냈기 때문이라 서술된다. 그런데 소설 속 여러 인물들의 행동을 추동하고 갈등을 촉진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설정된 것 역시 '돈'을 향한 욕망에 다름 아니다. 백영호의 유산 백만 원에 대한 욕망, 황세민의 학교 기부금에 대한 욕망, 오상억의 주은몽 재산의 상속 욕망 등이 서로 부딪치며 서사를 추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근본악에 해당되는) 백영호는 주은몽의 (사적) 복수로 인해 처단되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은 것은 황세민과 오상억의 돈에 대한 욕망뿐이다. 그러나 작가에 의해 오상억의 욕망은 부정한 것이라 간주되어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에 비해, 황세민의 욕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단의 장면은 그려지지 않은 채 그가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회개하여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는 점이 강조될 뿐이다. 이때 '혜성전문학교'와 관련한 서술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민족사학'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강조되는 지점이다. 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학교 운영이 곤란에 처한다. 그런 점에서 황세민이란 인물을 통해 발화되고 있는 사학교육을 위한 기부금 마련의 문제는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⁵⁶⁾

56) 그러나 정혜영은 소설 속 1930년대 식민지의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든 모티프들 (오상억과 만주개간, 백문호와 민족사학 운영, 흥첩지와 금광개발, 백남철의 실종과

반면 서술자에 의해 오상억의 이러한 몰락의 서사는 철저히 ‘만주 개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1932년 괴뢰국가 만주국이 건국되고 난 뒤, 일제는 ‘왕도낙토’ ‘오족협화’의 슬로건을 통치이념으로 내걸고 만주국 운영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동군의 만주 영유와 개척 용지 매수의 문제를 살펴볼 때, “만주를 진정한 안락경으로 만들어 공존공영을 꾀하⁵⁷⁾겠다는 만주국 설립 이념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주국 최고 검찰청이 발간한 『만주국 개척지 범죄 개요』(1941)⁵⁸⁾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철저히 갈취와 수탈로 수행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일본 내지의 경제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적 구세주”로 상상된 만주국 개척의 서사는 실상 “모순을 수출하여 중국인·조선인 농민들과 일본인 개척이민들 사이의 모순을 증폭⁵⁹⁾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상억의 만주 개간의 욕망은 ‘만주-조선-일본’ 사이에 매개되어 있는 식민지배체제의 실체를 은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나 오상억에게 있어서 만주 개간의 욕망은 백정 출신이라는 “신분콤플렉스를 완전히 탈피⁶⁰⁾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스스로 제국의 위치에 서서 ‘대동아공영’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하는 모습과 닮아있는 부분이다. 오상억이 완전 범죄를 계획하며 스스로

하얼빈 등이 그저 범죄사건의 흥미로운 구성을 위한 “에피소드의 차원으로 전략”됨에 따라 『마인』에는 역사성이 소거된 공간만이 남아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혜영, 『1930년대의 조선과 이국적 탐정소설 『마인』』, 『탐정문학의 영역』, 역락, 2011, 60쪽.

57) 관동군 참모부, 『만몽에서의 점령지 통치에 관한 연구(1930.5)』, 쓰노다 준 편, 『이시하라 간지 자료(국방논책)』, 原書房, 1967, 53쪽(야마무로 신이치,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9, 272쪽 재인용).

58) 야마무로 신이치,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9, 272쪽 참조.

59) 야마무로 신이치,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9, 273-274쪽.

60) 정혜영, 『1930년대 조선과 이국적 탐정소설 『마인』』, 『탐정문학의 영역』, 역락, 2011, 59쪽.

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학수, 흥서방, 예쁜이를 일말의 죄책감 없이 살해하는 모습은, '민주'로 상징되는 일제의 대륙 침탈의 야욕과,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폭압적 식민지배체제의 양상과 오버랩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오상억의 돈을 향한 욕망은 좌절된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최후의 추격전 이후 서술되는 오상억의 도주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내막이 밝혀진 오상억은 모든 도주로가 차단되자 M백화점을 향해 뛰어 들어간다. 폐장시간이 임박한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그는 권총으로 이들을 위협하며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창설 이십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애드벌룬이다. 그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 애드벌룬을 타고 유유히 창공으로 도주하는데 성공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상억의 도주가 실제 가능하나 불가능하나의 문제보다도, 1930년대 후반 식민지 경성의 대표적인 소비 공간으로 상징되는 ‘미쓰코시 백화점’을 배경으로 삼아 악인의 몰락의 서사를 상징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상승 운동과 높이에 대한 감각을 차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1930년 경성 본정(本町) 1정목에 개장한 미쓰코시 백화점은 당시 식민도시 경성의 모더니티의 상징이자, 그 속에서 들끓는 근대화의 욕망 그 자체를 은유하는 핵심적 장소이다. 김기림은 『도시풍경1·2』에서 이러한 “근대적 <데파-트먼트>”의 존재에 주목하여, 그것이 “급격한 각도의 직선을 도시의 상공에 뿌렷하게 부조(浮彫)⁶¹⁾하고 있는 점을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이상의 소설 『날개』의 경우, 주인공 ‘나는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 위에 올라가 식민지 경성의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식민지 근대의 감각과 현실의 문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식민지 경성의 삶은 “뚝 금붕어 지느레미처럼

61) 김기림, 『도시풍경』, 『조선일보』, 1931.2.21.

흐늩흐늩 허비적거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영켜서 헤어나지들을 못”⁶²⁾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날개』의 ‘나’가 다시 회택의 거리로 내려오는 것과 달리, 오상억은 애드벌룬의 줄을 타고 더 높이 상승한다. 그 모습은 마치 “곡예사”의 그것과도 같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또한 관중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의 최후가 “이 불완전한 광고풍선”과도 같이 추락할 운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 점은 일제의 식민지배체제를 마주한 조선인 작가의 소설 쓰기에 내포된 또 다른 무의식적 파편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소설 속 오상억이 애드벌룬을 타고 지상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과 같은 시각, 유불란은 주은몽의 부친 황세민(백남호)을 데리고 주은몽의 쌍둥이 자매를 찾아 길에 나선다.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작가는 식민도시 경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던 조선 민중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인』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식민지 현실의 부재’라는 문제가 ‘한정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다. 유불란과 황세민이 쌍둥이 딸 예쁜이가 살고 있다는 곳을 향하는 도중 이들의 눈에 “좁은 길가에 계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부암동의 모습이 비친다. 이를 지나 도착한 점술가 박영태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져” “개천을 하나 건너서 산비탈에 외따로 서 있는 초가삼간”으로, “조그만 널빤지로 만든 간판이 붙어있”을 뿐이다. 소설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제시되고 있던 경성 도심의 화려한 면면은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모던 경성’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비로소 식민도시 경성의 또 다른 민낯이라 할 수 있는 근대화 ‘내부’의 민중들의 모습이 비춰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소설의 반전이랄 수 있는 ‘쌍둥이 모티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논자들에게 의해 하나의 (실패한) 흥밋거리로서 활

62) 이상, 『날개』, 『조광』, 1936.9.

용된다고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의 등장이 일종의 거울상 모티프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생각해본다면 『마인』의 전체적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주은몽:예쁜이=공작부인:소경의 딸=경성의 중심:외곽=식민지 근대화의 외면:내면이라는 대립구도를 설정한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산출된 이중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근원적인 균열이 결코 봉합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간극은 해소되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된다. 소설 속 탐정 유불란은 최후의 범인 오상억으로부터 주은몽과 예쁜이 어느 누구도 구출하지 못하고, 이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마인』의 이와 같은 결말 처리 방식은 식민도시 경성에서 발견되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배체제의 속성과 그 민낯에 대한 은유로 읽힐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탐정의 소멸과 '스파이' 유불란으로의 복귀

그렇다! 몇 달 동안 서울 장안을 휩쓸던 폭풍우는 사라졌다. 은몽도 죽고 오상억도 죽었다. 문학수도 죽고 정란도 죽고 흥 서방도 죽었다. 그리고 백영호도 죽고 백남수도 죽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은 끝났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화의 햇살이 빛날 것이다.
(462면)

전 경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귀 해월의 연쇄살인사건은 마침내 오상억과 주은몽의 자살로 마무리된다. 범인의 자살로 문제가 해결되는 점이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고 모든 사태의 전말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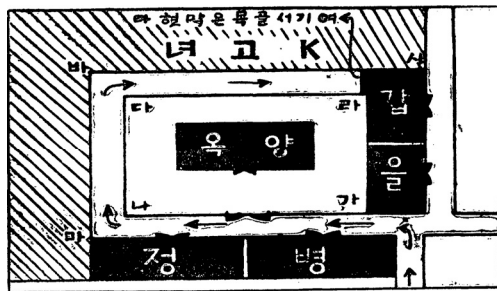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돌연 유불란은 “탐정 폐업”을 선언한다.

유불란은 자신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탐정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탐정에게는 연애 감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탐정의 혈관에는 피가 순환하여서는 안 되”고 “강철이 돌아야 하”(475면)는 이성적 추리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감정적 편향에 휩쓸려 사건을 마주 대했다고 말한다. 논자들에게 의해 이러한 유불란의 선언은 탐정소설의 ‘이론’과 ‘창작’의 문제에 대해 고뇌했던 작가 김내성의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복잡한 수수께끼의 제시와 논리적 추론이라는 본격 탐정소설의 형식이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⁶³⁾을 의미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왜 유불란은 탐정 폐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작품들에서 그는 ‘스파이’로 변질되는 운명에 처하는가. 앞선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소설 내부로부터 모든 범죄가 소탕된 경성의 앞날은 밝고 건전한 것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목소리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작가-서술자 차원의 목소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실상 소설 내부에서 목격되었던 인물들의 서사와 조응되지 못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마인』 속 대부분의 인물들은 패배자(혹은 피해자)로 그려지고 주인공 유불란은 이들의 몰락을 막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작가-서술자의 긍정적 전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면적 의도와 실제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추리·탐정 서사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작가 김내성은 ‘건전·명량한’ 사회질서의 구축이란 미봉책을 선택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이 소설에 나타나는 균열지점이라고 한다면, 작가-서술자에 의해 공표되고 있는 발화는 체제유지와 질서를 향한 선전에 다름 아닌

63) 최애순, 『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가 김내성의 갈등: 본격 장편소설 『마인』이 형성되기까지』,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99쪽.

것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유불란이라는 근대적 지적 추리의 주체가 철두철미하게 객관적·과학적인 논리로 무장하여 식민지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발견되는 사건들에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회질서가 건전·명량하게 유지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유지된 상황 속에서 유불란은 스스로 “폐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유불란의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의 징후를 소설 속의 한 장면에서 찾아본다면, 서두에서 제시된 ‘도면 삽화’의 존재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연재 16회분 도면 삽화
(김내성, 「마인」, 『조선일보』, 1939.3.7)

위 삽화는 소설 초반 이선배(유불란)의 도주 과정에서 그가 ‘증발’해버린 것으로 서술된 골목길 부분을 도면으로 그려 소개하는 부분이다. 이는 작가에 의해 고안된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사건을 마주한 독자가 본격적인 추리·탐정 서사의 방향으로 이 소설을 독해하게끔 유도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김내성은 소설 속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추리 행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그 사건 현장을 하나의 ‘도면’으로 그려내어 독자들에게 제시하곤 하는데, 이는 초기 단편들에서부터 발견되는 특징으로⁶⁴⁾,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현장을 도면화함으

로써 독자의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아 『마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법이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길의 존재와 이에 대처하는 유불란의 모습에서 우리는 식민지 조선에서 상상된 탐정이 처한 운명을 예감할 수 있다. 더 이상 돌파해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유불란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스스로를 ‘위장’하여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속으로 빠져 들어갔는지 연기처럼 사라지”(56면)는 것뿐이다. 그저 “한가롭게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걸어”오는 “산보객”이 됨으로써 식민도시 경성의 불온한 존재였던 ‘탐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장면은, 이후 탐정 유불란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암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⁶⁵⁾

64) 『타원형의 거울』에서도 김내성은 김나미 살인사건의 현장에 대한 도면을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 어느 위치에 어느 물건이 놓여있으며, 그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한편, 최애순은 『마인』에 나타난 추리과정의 ‘밀실 추리’의 재현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소설 속에서 제시되는 수수께끼는 ‘사건의 발생과 막다른 곳에서 사라져버리는 범인’이며, 이를 추적하는 추리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설 서두에서 이선배가 경찰에게 쫓기고 골목에서 종적을 감춘 부분을 도면삽화까지 그려가며 공들인 이 장면이 “마치 미술사처럼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밀실 수수께끼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 말한다. 그는 김내성의 『마인』이 영미 추리 계열이 아닌, 가스통 르루식의 ‘범인=이중의 역할 수행’이란 상상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최애순,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265-273쪽 참고.

65)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유불란이 사건들을 향해 내보이는 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소설 전반에 걸쳐 해월의 정체를 두고 경쟁하던 유불란과 오상역의 추리게임은 결국 오상역의 악인으로서의 실체를 밝히는 유불란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때 승리자 유불란의 시선에 포착되는 오상역의 도주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흥미로운 추격전에 다름 아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유불란 탐정은 홀로 이층에 남아서 마치 재미있는 서부활극을 눈앞에 보듯 들창에 상반신을 의지하고 쫓고 쫓기는 자의 그 흥분된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435쪽)” 여기서 유불란은 명수대 주은몽의 자택에서 그러한 도주 추격의 장면을 유유히 조망할 뿐인

그런 점에서 『태풍』(1942.11.22~1943.5.2), 『매국노』(1943.7~1944.4)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제말기 '방첩소설' 속 '스파이' 유불란의 모습은 다시 탐정으로 복귀한 유불란의 식민지 경성에서의 자기 정립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국책에 순응하는 '첩자' '스파이' 유불란의 서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제국적 주체로의 신생의 욕망"이 "식민지 말기 한국문학의 제국적 주체 형성의 문법을 공유"⁶⁶⁾하는 장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맞닥뜨린 '법-질서의 대리자'라는 탐정의 속성이 굴절·왜곡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일제말기 김내성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탐정의 '부재' 현상은 식민도시 경성에 '상상된' 탐정의 정체성이 재정립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데, 문제는 그의 시선에 포착된 추격전이 마치 식민지 경성의 공간에서 상영되는 '서부활극'과도 같은 것으로 치환되며 유불란은 이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범인의 발각과 사건 내막의 파악이란 탐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유불란에게 있어서 범인의 처단이란 문제는 이제 그의 손을 떠난 일이다. 그것은 경찰 권력의 문제일 뿐 그에게는 지적 추리의 과정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66) 정중현, 『백가면, '붉은 나비'로 날다』,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181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내성, 『마인』, 페이퍼하우스, 2009.
_____, 『연문기담』, 페이퍼하우스, 2010.

2. 논문과 단행본

-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김성연, 『방첩소설,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국민오락’의 조건: 김내성의 『매국노』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217-239쪽.
김영욱, 『김내성의 『탐정소설가의 살인』에 대한 기호학적 서사 분석』, 『한국학연구』 제2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337-378쪽.
김주리,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내성의 〈마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3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181-210쪽.
대중문화연구회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실천, 201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류수연, 『신문, 도시, 그리고 탐정소설: 김내성의 『마인(魔人)』 연구』, 『상허학보』 제40집, 상허학회, 2014, 81-112쪽.
방민호 편,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음, 2010.
백 철, 『1933년도 朝鮮文壇의 展望』, 『東光』, 1933.1, 70-71쪽.
_____,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신성환, 『김내성 번안 추리소설에 나타난 공간의식 연구: 아서 코난 도일의 원작 속 공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批評文學』 제44호, 韓國批評文學會, 2012, 259-298쪽.
아마무로 신이치,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9.
에르네스트 만넬,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이후, 2001.
유재진·이현진·박선양 편, 『경성의 일본어 탐정소설: 탐정 취미』, 문, 2012.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제144호, 국어국문학회, 2006, 91-112쪽.
이영미 외, 『김내성 연구』, 소명출판, 2011.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김내성 100주년 특집』, 페이퍼

- 하우스, 2009 봄호, 210-229쪽.
- 정세영, 『김내성 소설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중현, 『‘大東亞’와 스파이: 김내성 장편소설 『태풍』을 통해 본 ‘대동야’의 심상지리와 ‘조선』,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211-247쪽.
- _____, 『“해방전후” 김내성 스파이-탐정 서사의 연속과 비연속: 〈태풍〉과 《청춘극장》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457-508쪽.
- 정창석, 『만들어진 신의 나라: 천황제와 침략 전쟁의 심상지리』, 이학사, 2014.
- 정혜영, 『번역과 번안 간의 거리』, 『현대소설연구』 제4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405-433쪽.
- _____, 『제국과 식민지, 그리고 탐정문학: 김내성의 〈태풍〉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0, 201-225쪽.
- _____, 『탐정문학의 영역: 식민지기의 환상과 현실』, 역락, 2011.
- 조성면, 『한국 근대 탐정소설 연구: 김내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조성면 편,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
- 조윤정, 『이태준 문학의 심상지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차선일, 『한국 근대 탐정소설의 한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4호, 국제한인문학회, 2014, 181-207쪽.
- 최애순,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과비평사, 1994.
- 홍윤표, 『탐정소설과 식민지적 아이덴티티: 김내성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23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97-220쪽.
- 『祕密探偵局』, 『삼천리』, 1932.9, 131쪽.
- P探偵, 『서울探偵局 内幕探偵記』, 『삼천리』, 1941.3, 42쪽.
- 『백일청천하 폭로된 사설 탐정소 흑막』, 『중외일보』, 1929.3.13.
- 『신어해설』, 『동아일보』, 1931.2.9.
- 『에로·그로·년센스-亂舞한諸尖端相(1)』, 『조선일보』, 1931.1.2.
- 片石村, 『尖端的 流行語』, 『조선일보』, 1931.1.4.

Abstract

'Imagined' Detective and the Original faces of colonial cities - Focusing on Kim Nae-seong's Novel *Ma-In*

Kim, Hee-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colonial city 'Gyeongseong' and the 'Detective' in Kim Nae-seong's novel *Ma-in* -which was published in 1939. The most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about the literary worlds of Kim Nae-seong is 'space', especially Nae-seong's cities. In general, studies about Nae-seong's urban spaces focus on the fact that the cities shown his novels are no different from the cities in 'modern' Western detective novels, and the studies point out that this aspect is an uncritical 'imitation or transplantation' of exotic frameworks. However, cities that is shaped by Kim Nae-seong are characterized as real spaces of Gyeongseong and 'modernized' specific places, and then function as a space to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nial c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constituting the word 'detective', and focuses on the features that this word has double meanings ('a subject of 'intellectual reasoning' and 'informant'). These features have possibility that detective can be read as a problematic figure who may strengthen or disturb the order of Imperial Japan. At this point, detectives as original meaning (in Western detective novels) couldn't be existed in the colonial city Gyeongseong, so the existence of detective was 'imagined'. Kim Nae-seong investigate the crimes in Gyeongseong with eyes of 'imagined' detective, and through this, the 'original face' of colonial city appears in his works. Colonial separation can be considered by examining the chase scene in *Ma-in*, and through the examination, one can 'restore' the Gyeongseong in regards to 'imagined geography'. However, the 'imagined' detective in Joseon seems to suffer the fate of 'disappearing'. The 'spy or anti-espionage' narrative appearing in Nae-seong's later novels shows that dual characteristics of detective are eventually converged into the order of Imperial Japan. That used to answer the author's

question concerning *Ma-in*: the existence of an intelligent and objective 'subject' who can 'detect' Imperial Japan in Joseon possible.

(Key Words: Kim Nae-seong, 〈Ma-in〉, detective novel, (imagined) detective, imagined geography, colonial separation)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3일

수정완료일 : 2017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5일